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6월 지계(持戒)의 달

- 계가불자와 계율
- 지계 없는 수행의 위험
- 사회윤리로서의 지계
- 일상 속에서의 지계

일상 속에서의 지계



지계를 위해서는 참회가 필요하다. 사진은 8일 서울 서초동 정토회 실무자들이 포살법회 후 부서별로 계율 하나하나에 대해 구체적으로 참회하고 있는 모습.

서울 서초동 정토회 실무자 50여 명은 3년 전부터 30계본을 마련해 매일 한 차례 지계를 점검한다. '살아 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로 시작해 '잘못한 줄 알면 즉시 참회하고 정기적으로 포살과 자자를 행한다'로 끝나는 30계본은 일상생활 속에서 불자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생활 윤리를 담고 있다.

매월 두번째 토요일에 열리는 포살법회는 한달 동안 30계본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점검하는 자리다. 전체 법회에서 지

에서도 일상 속에서 계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일부 사찰이나 신행 단체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서울 조계사는 2000년부터 오계 지키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고, 조계종 중앙신도회도 불자들이 지계를 생활화하자는 '불자 생활 윤리 운동'을 올해 동안 펼친다.

그러나 지계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꼭 지켜야겠다는 자각'이 우선해야 한다. '자기 점검'이 필요하고 '참회'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해인사에서는 매일 율목 10

늘 깨어있고 참회하는 자세를

도 법사가 계본 하나하나에 대해 "이 계본에 대해서 청정합니까?" 하고 세 번 물으면, 그 계본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일어나 삼배를 올린다. 이어 열리는 부서별 시간에서는 어떻게 해서 계본을 어기게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참회한다.

장도연 기획실장은 "오계를 기본으로 한 30계본은 수행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정토회원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것들로 짜여져 있다"며 "한 가지 계를 계속해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지만, 포살법회를 통해 참회를 계속하다 보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고 말한다.

교리 공부, 참선, 기도가 신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풍토 속

일 재가불자들을 대상으로 참회기도를 하고 있다. 법회 때마다 2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날, 불자들은 참회기도를 통해 스스로 계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되새긴다. 참회기도를 집전하는 해인사 율원장 해능스님은 "지계가 생활화되지 않는 것은 자기한테 적합한 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꼭 지켜야겠다는 자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한다.

해능스님은 "계를 지키지 못했을 때 그냥 덮거나 합리화해 버리면 더 큰 허물이 된다. 참회하는 마음이 바로 지계다"며 "깨어있는 정신에서 늘 점검하고 반성하는 것이야말로 일상에서의 지계"라고 강조했다.

권형진 기자

6월 27일 (목)

■웅진신행회 '성지순례' = 중국 오대산 문수도량, 대동 은강석굴, 북경, 만리장성...

■중국불교 유적을 찾아가는 웅진신행회의 성지순례가 7월 2일까지 5박 6일로 마련됐다. 2천년 중국불교의 현장을 찾아가 답사, 해능 등 대조사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 참가비는 1백 18만원. (02)2279-1191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 '사찰음식특강' =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가 28일까지 서울 필동 '한국의 집'에서 사찰음식 공개강좌와 무료시식회를 실시하고 있다. 또 사찰음식과 연꽃을 주제로 작품 30점도 전시된다. (02)355-5961

신행 캘린더

6월 29일 (토)

■대구 맑고향기롭게 '연기사상강좌' = 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대구은행 본점 옆 대구모임 사무실에서 불교 출판가 박훈천 선생이 진행하는 불교연기사상 강좌를 연다. 강좌는 원시불교 경전인 아함경 속에 있는 12 연기법 등 기초교리들 중심으로 진행된다. (053)753-8883

6월 30일 (일)

■경기불교문화원 '불교유적 답사' = 공주 마곡사, 청양의 장곡사와 보물 제18호 정선리 구경석담을 찾아가서.

7월 3일 (수)



◇골굴사선무도단의 사범모습.

■신라문화원 '전통명상음악과 선무예' = 신라문화원은 오후 3시 경주 노서동 고분군에서 '전통명상음악과 선무예' 행사를 마련했다.

이 행사의 참가자들은 경주 남산 탐골 마애조상군, 감실불상, 황룡사터 등을 둘러보고 골굴사 선무회단이 선무도시범, 동국대 운소회 교수의 가야금 시연 등을 관람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

다. (054)774-1950

■정토회 '깨달음의 장' = '자연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겨레와 더불어, 삶의 매 순간마다 향시 깨어 있는 그를 우리는 깨달은 사람이라 부른다.'

정토회가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낮 12시부터 4박 5일 동안 진행되는 자기 성찰 프로그램으로 불자들을 초대한다. 참가비 20만원. (054)571-6031

■영주 장애인종합복지관 '손으로 보는 세상' = 불교 설화, 불교 교리 등을 수화로 배워보면 어떨까?

영주 장애인 복지관과 자원봉사단체인 소리나눔회는 3일 오후 1시 50분 복지관 2층 강당에서 수화교실을 진행한다. 수강료는 월 1만원. 수·금 2회 3개월 과정. (054)633-6415

신도들 어려움 '척척' ... 해결사 별명

우리 절 우리 신도

서울 여래사 김범열 거사회 회장

"글쎄요, 다른 일이 있어서 올 수 없을지..."

"오셔가지, 무슨 말씀입니까. 안 오시면 앞으로 얼굴 안 볼 겁니다."

17일 오후 서울 성북동 여래사. 업무 차 여래사에 왔던 동사무소 직원 두 명이 이곳 거사회 회장인 김범열 거사(48, 법명 무경)의 협박(?)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인다. 23일 오전에 봉행되는 여래불교대학 현판식 및 천년(千年) 나무로 조성했다는 불단과 아미타 부처님 점안 법회이 꼭 참석해 달라는 것이었다. 함께 있던 다른 신도들은 이 모습을 보며 "역시 해결사다!"라며 한바탕 웃음을 터뜨린다.

네 사람에게 집을 마련해 주기도 했다. 이번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는 천년 나무 불단도 김 거사가 전국 각지를 돌며 수소문한 끝에 밀양에서 구한 것이다. 주유소와 종교차 매매업을 하는 김 거사는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은 아니지만 여래사는 물론 이 지역 최고의 '스타'다.

이런 사실을 잘 알기에 신도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김 거사를 찾는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김 거사가 나서면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래사 주지 동휘스님과 신도들은 그런 김 거사를 '호법 신장' 또는 '해결사'라고 부른다.



◇아미타 부처님 점안법회와 여래불교대학 현판식을 앞두고 김범열 거사(가운데)가 동휘스님(왼쪽)과 동내 친구이자 도반인 김철한(오른쪽)·이광우 거사와 행사일정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마음에 절 지어보라" 말 듣고 불교와 인연

'돈키호테식 포교' ... 집 데려와 법회 권유도

김 거사가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2년 전 친구인 김철한 거사(48)의 권유에 따라 여래사에 와서 "절에 오지 않아도 좋으니, 마음에 절을 지어보라"는 주지 스님의 말을 듣고 나서 부터다.

그 뒤로 김 거사는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법회는 물론 사찰에서 하는

모든 법회와 행사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바로 이를 전에도 철야정진법회에서 1천배 기도했다.

김 거사는 근래 들어 사찰 출입이 부쩍 잦아졌다. 하루에도 두 세 번씩 오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마다 낯모르는 사람과 함께 와서는 "앞으로 여래사 신도가 될 분"이라며 소개하곤

한다. 문을 연지 3년도 안된 여래사가 신도 1천여명의 사찰로 자리잡게 되기까지는 김 거사의 '돈키호테식 포교'가 큰 몫을 했다.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절 신도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바로 여래사로 데리고 오죠. 어떤 때는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절에 나오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정말 돈키호테 같아요" 여래사 합창단 반주자인 육자해 보살

(42)은 그런 김 거사의 타프함이 매력이라며 웃는다.

사람들을 집에 너무 많이 데려오는 탓에 김 거사 아내 정필례보살(47, 법명 여대현)이 달가워하지 않을 법도 하지만 오히려 정반대다. 어떤 때는 김 거사보다 정 보살의 고집스런 권유에 여래사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 정 보살 역시 신도회 부회장으로 여래사에서 없어서는 안될 핵심인물이다.

김 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스님과 함께 전법도량을 마련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1천원 기도를 해오고 있다.

사람들을 집에 너무 많이 데려오는 탓에 김 거사 아내 정필례보살(47, 법명 여대현)이 달가워하지 않을 법도 하지만 오히려 정반대다. 어떤 때는 김 거사보다 정 보살의 고집스런 권유에 여래사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 정 보살 역시 신도회 부회장으로 여래사에서 없어서는 안될 핵심인물이다.

김 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스님과 함께 전법도량을 마련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1천원 기도를 해오고 있다.

추천의 말

동휘스님 서울 여래사 주지



아마 전국 어느 사찰엔 가더라도 김범열 거사와 같은 신도를 만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도 사찰과 신도를 일음 그릇으로 열심히 거들고 나설 수 있는 것은 지극한 신심이 없으려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김 거사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전혀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마을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남모르게 장학금을 주고, 또 봉사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해 왔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도 알았을 정도입니다. 요즘에는 여래불교대학에서 기초교리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더욱더 왕성한 포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절 신도들은 대부분 불교에 입문한 지 1-2년 밖에 되지 않은 초심자들이지만 김 거사와 같이 열심히 신행을 하는 신도들이 많습니니다. 이런 신도들과 함께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지스님께서서는 늘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법으로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을 가꾸자"고 하십니다. 더 큰 도량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 이상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한영우 기자

제 5회 전국강원연합 불교학술대회

- 강원 교육의 현황과 불교의 시대적 역할 -

귀의삼보하옵고, 전국강원연합회에서는 변화하는 현대 사회속에서 바람직한 승가교육의 방향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모색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강원 교육의 현황과 불교의 시대적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 5회 전강원 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 ▷ 일시 : 2002년 7월 12일(금) · 13일(토)
- ▷ 장소 : 중앙승가대학교 대강당 · 지예관
- ▷ 주최 : 전국강원연합
- ▷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교육원, 강원교직자협의회, 중앙승가대학교, 해인사강원총동문회, 현대불교, 불교텔레비전 btn, 불교방송, 불교신문

- 7월 12일(금) -

□ 제 1부 개회식 (오후 1:00 ~ 1:30)

- 삼귀의 인사말
- 격려사 : 무비스님(교육원장)
- 축사 : 법정스님(전강원 상임교문, 수덕사주지) 지오스님(강원교직자협의회장, 해인사 강주)

□ 제 2부 공동주제발표 (오후 1:30 ~ 3:00)

- 제 1주제 「강원교육의 교학과 수행의 고찰」 - 혜국스님(남국선원 선원장)
- 제 2주제 「한국불교의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 - 중범스님(중앙승가대학교 총장)
- 제 3주제 「한국불교 포교의 현황」 - 지광스님(승인선원 이사장)
- 기념촬영(오후 3:00)

□ 제 3부 분과별 주제발표(오후 3:30 ~ 6:00)

- 제 1분과 : 인도철학, 인도대승 이전 불교 - 임승택교수(동국대강사), 이종표교수(전남대철학과)

- 희찬스님(쌍계사 사집사), 일창스님(범어사 사교과)
- 원우스님(해인사 사교과), 심근스님(동학사 대교과)

- 제 2분과 : 종관 · 기신 · 유식
- 김성철교수(동국대 불교학과) · 이정희교수(서울교대)
- 이평래교수(충남대 철학과), 해현스님(삼선강원 사교과)
- 성중스님(백암사 사집과), 호선스님(동학사 사집과)

- 제 3분과 : 응용불교 · 선심리 · 비교불교
- 조현준교수(경북대심리학과) · 이혜숙교수(동국대 불교학과)
- 종우스님(운문사 사교과), 혜각스님(해인사 사교과)
- 선현스님(법주사 치문과)
- 제 4분과 : 대승불교, 법화천태 · 밀교
- 노권용교수(원광대) · 이병욱교수(고려대강사)
- 법광스님(해인사 사집과), 태원스님(봉녕사 사교과)
- 명우스님(동학사 사교과)

□ 저녁공양(오후 6:00 ~ 7:00) □ 다과회(오후 7:00)

- 7월 13일(토) -

□ 학술대회 총회(오전 8:00) □ 폐회식

전국강원연합

불교학술대회 조직위원회 055)931-3290, 931-1016 홈페이지 http://www.insca.or.kr